



뭘 생각하고 있는가

물질주의로 이어지는 성장과 질서, 개인주의로 이어지는 자유와 민주, 그래서 결국 물질적 개인주의로 치닫는 이들은 사회적 평등과 사회적 이익으로 잇는 작업을...

朴宇熙 / 서울대 교수 · 경제학

나라가 새로 만들어지고 근대화가 추진되는 동안 우리는 많이 변했고 또 지금도 많이 변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머물러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또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도 모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잘 모르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잘못 알고 있고 사실 알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자기 주위 몇 사람과 얘기하는 것으로 다 안것같이 착각하기 일쑤고 사회과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단편적인 앙케이트 조희로 그치기 고작이다.

지금 우리사회만큼 급속히 또 특이하게 변하는 곳도 그리 흔하지 않다. 미국 일본과도 다르게 동남아시아나 남미와도 다르게 경제 사회의 구조 정치의식과 문화 기반이 급변하고 있다. 학생과 교수의 생각도 다르고, 부모와 자식, 공무원이나 판사, 기업가나 군인들간에도 단층(斷層)이 대단하다. 사회 계층과 직업관도 어제 오늘 다르게 바뀌고 있고, 한편 도시와 농촌간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교통편의 등 때문에 수렴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어린이날 저녁에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가 수원까지 꽉 밀려 있는 모습, 월드컵 축구경기 때 서울 거리가 한산한 모습 등은 모두 우리를 새로 놀라게 한다.

이런 변화는 실로 큰 흐름을 이루면서 진행되고 있다. 누구 한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도도히 흐르고 있다.

이런 큰 흐름의 밑바탕에는 물론 우리가 그간 자본주의적으로 근대

화되고 있다는 것, 성장과 질서, 자유와 민주를 바라면서 진행되었다는 것, 경제의 개방과 기술의 눈리가 병행되었다는 것 등이 내재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방향으로 흐를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고 있고 만일 바른 방향으로 잡아 주지 않는 한, 나아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어떤 나락으로 빠져들지도 모를 위험지대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우리는 성장과 질서로 생활이 나아지고 물질적 만족도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것 때문에 물질만능과 향락주의, 독선과 강제가 우선되었다. 한편 자유와 민주로, 경쟁과 창의, 눌러있던 것에서의 해방과 개인의 지위 향상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무규범의 혼돈이 판을 치는 경우가 야기되었다. 자본주의적 근대화로 경쟁과 능률 속에서 물량 증대를 가능케 하였지만 자유와 개인 이익, 질서와 강압, 능률과 형평의 상충 때문에 그대로 가다간 반(反) 자본주의적 심리가 더욱 고조될 가능성마저 배태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변화와 흐름을 바로 알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한다는 기본 틀을 지키면서도 성장과 질서만을 내세운 정강만으론, 또 자유와 민주만을 부르짖는 슬로건 만으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어떠한 사회도 이룩할 수 없다. 물질주의로 이어지는 성장과 질서, 개인주의로 이어지는

자유와 민주, 그래서 결국 물질적 개인주의로 치닫는 이 둘을 사회적 평등과 사회적이익으로 잇는 작업을 벌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일은 궁극적으로 이기와 이타(利他), 개인적이익과 사회적이익, 서양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비개인주의를 연결하는 것이고 가족과 생산기업, 직장과 국가 공동체에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근대화에 알맞게 조화하고 기업주와 근로자간의 관계를 생산과 능률을 제고하면서도 공평과 일체감을 잃지 않게 조화하며 계급을 직업으로 대체하고, 지배 피지배의 관계를 양식과 신의, 검약과 절도로 채우도록 우리의 의식과 제도를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가족 내에서

가족 구성원의 따뜻한 정성, 또는 사랑이 서양적 핵 분해와 동양의 가부장적 권위를 대신하고 이 점에서 부모와 자식, 남편과 부인간의 이기와 이타가 조화되어야만 한다. 다음 생산기업 내에서는 기업소유주가 따뜻한 마음씨의 부모가 되고 이윤을 독식하지 않으면서 부모가 되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능력있는 근검 절약자가 되면서 종신 고용제는 아니지만 근로자를 마음대로 쫓아버리거나 임금을 깎지 않는, 그래서 노동조합도 그 기업의 확장과 발전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

서로 한 식구로 알고 종업원 지주제도 아래서 생산과 분배에 참여할 때 비로소 기업은 의리고존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공동체에서는 계급간의 투쟁이 배태되지 않도록, 권력자가 양심과 도의, 능력과 권위를 구비하면서 시민과 농민, 근로자나 직장인으로 회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때 비로소 개체와 전체가 합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두가 합친 사회공동체에서 사회분화(社會分化)가 진행되면 될수록 각 직장공동체 내에서 누구나 만족스레 합의하는 선에서 스스로 규범과 전통을 확립하고 이런 규범을 어떤 힘으로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소중히 가꾸며 지키는 작업이 겸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먼저 알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언제나 가능한 일들이다.

日新齒科技工所

대 표 우 광 소

인천시 중구 경동 240번지

TEL. 73 - 9737